



  
**KOREA  
WINE  
CHALLENGE  
2021**



## All about KWC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KWC 2021의 가장 큰 이슈는 '역대 최다 출품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와인 시장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와인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약 2주간 진행된 KWC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며 안전하게 치러졌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올해의 와인 이슈를 살펴본다.

# 우리 입맛에 맞는 최고의 와인을 뽑는다

글 코리아와인챌린지 사무국

월간 <Wine Review>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 와인 경쟁 대회인 Korea Wine Challenge(이하 KWC)가 올해 제 17회를 맞이했다. 지난 16년 동안 KWC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선별하여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와인을 소개한다'는 슬로건 아래 한국 와인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KWC는 국내에서는 국제 와인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며, 해외에서는 한국 와인 시장 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WC 2021에는 21개국에서 총 888종의 와인이 출품되었다. 헝가리, 조지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의 참가가 눈에 띄었으며, 무엇보다 호주 와인이 트로피 레드와 화이트, 스위트 부문까지 3관왕을 차지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예견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올해에는 작년 대비 전체 출품 수량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 와인 대회로는 KWC가 유일무이함과 동시에 와인 시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다양화된 국내 와인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와인은 지난 6월 21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수요일까지 약 2주간 국가, 품종, 블렌딩 비율, 양조 방법, 가격 등에 따른 카테고리 나뉘어 철저한 감독하에 공정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평가되었다. 품평방식은 총점 100점 중 기본적으로 50점을 부여하고, 여기에 더해 각 와인에 대한 '색상과 외양'에 6점, '향과 부케'에 12점, '맛과 여운'에 20점 그리고 '조화와 균형'에 12점으로 나누어 심사위원들이 최대 50점을 와인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했다. KWC 2021의 심사위원은 대중과 가까이 소통하는 현직 소믈리에들과 와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높아진 와인의 퀄리티로 말미암아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KWC에 참가 경력이 있는 기존 심사위원단 37명과 각종 대회 수상 및 실력 있는 신규 심사위원 12명이 선출되어 총 49명의 심사위원이 KWC 2021과 함께했다.

품질이 뛰어난 전 세계 많은 와인의 참가는 KWC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었고 한국 와인 시장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KWC 2021의 메달 수상은 부문별 최고의 상인 '트로피'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로제 와인, 스위트

트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에 부여되었고 올해 신설한 '메달 오브 아너'까지 총 7개로 구성되었다. 그 밖의 트로피 급의 최고상에 부합하는 점수(94점 이상)를 받은 11개 국가의 와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품평의 결과, 그 품질을 인정하여 '베스트 컨트리'가 수여되었다. 베스트 컨트리 부문 수상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이 포함되었고 소규모 참여국을 한데 모은 카테고리에서 마지막 베스트 컨트리 와인이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KWC 2021에는 총 888종의 와인이 출품되어 7개의 트로피, 11개의 베스트 컨트리 와인, 65개의 금메달, 129개의 은메달, 146개의 동메달이 선정되었다. 이들 와인이 한국 와인 시장에서 와인을 선택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소비자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KWC 2021 심사위원 명단>

KWC 2021에는 총 49명의 심사위원이 참가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대회에서 다양한 국가의 품질 좋은 와인들을 맛보며 공정한 심사를 이어갔다.

강창신 오스테리아 오로, 권홍식 금수장 호텔 아리랑하우스, 김경록 오프닝, 김성국 페어몬트 앰배서더, 김시보 그랜드마더, 김인규 와인 쉬어-리, 김민수 까사비노, 김중례 안동 와인하우스, 김진범 모수 서울, 김하늘 파크루시, 김현수 와인바 르 파르, 김협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김형남 아난티 힐튼 부산, 김형욱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김혜영 포항 루나피에나, 박민욱 그랜드조선 부산, 박종섭 The\_B, 배윤하 까사델비노, 심우성 봉플라봉뱅, 양대훈 어반 딜라이트·바81, 양윤주 하프패스트텐, 왕도열 에끌뒤펁, 우두희 델리쎄106, 유병현 웨스틴조선서울나인스케이프, 유상선 물랑, 유영진 비스타 워커히 델비노, 유찬 강원랜드, 윤지현 쉐즈알렉스, 윤형훈 뚜르뒤뱅, 이기람 비바라쵸, 이경진 와인주막차차, 이동규 롤링힐스호텔, 이동우 엑스퍼, 이주형 밀레볼레, 이준로 일치, 임현래 (주)더다림방프로젝트, 정우영 소믈리에, 정찬하 알리고떼, 정하봉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조내진 위플이앤디 초이닷, 조울호 그랜드 하얏트 서울, 조재호 모수 서울, 주재민 정식당, 최영준 현대그린푸드 EATALY, 최준선 신라호텔, 하동찬 알리고떼, 한희수 SPC 외식사업부, 홍광현 레플레드크리스탈, 황승호 인비노

# KWC selects the best wines for the Korean palate

Text by KWC Administration office

This year marked the 17th anniversary of Korea's one and only international wine competition, known as Korea Wine Challenge(KWC) hosted by the monthly magazine <Wine Review>. Under the slogan of 'Selecting the best quality wines for the Korean palate to introduce the most trustworthy wines to customers,' KWC has made dedicated efforts to develop the Korean wine market over the past 16 years. Domestically, KWC is considered an unparalleled platform for identifying global trends in the wine industry, while being one of the useful indicators for overseas wineries to consider when preparing to enter the Korean market.

A total of 888 wines from 21 countries were exhibited at the KWC 2021. A surprise entry was made from countries such as Hungary, Georgia, Romania, Bulgaria, Israel, Lebanon and South Africa with their distinctive wines in the competition. Most of all, Australian wines were able to predict changes and growth in the domestic market, winning three medals in the Trophy Red, White and Sweet categories. In addition, the total number of entries this year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last year. As the most prestigious international wine conventions in Korea, KWC is one and only and reflects the reality of the wine market, leading the diversification of the domestic wine market.

Over the two weeks, from Monday, June 21 through Wednesday, June 30, all of the wines that participated in this competition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country of origin, variety, blending ratio, oenology and price and evaluated under the impartial and strictly monitored blind tasting. The competition adopted a 100-point scoring system in which a default score of 50 points was given to all wines entering the contest as a courtesy for the effort of sending a bottle of wine for the competition. The remaining 50 points were strictly and fairly evaluated by a select panel of judg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6 points for the 'color and appearance', 12 points for 'aroma and bouquet', 20 points for 'flavor and finish', and 12 points for 'harmony and balance'. The selection criteria and regulations of the judging committee were more strictly enforced for fair judgement, and the judges paid more attention to the examination due to the higher quality of the wine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37 existing judging committee memb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evious KWC, and 12 new judges who won various prizes from various exhibitions were chosen and joined the KWC 2021.

The inclusion of a variety of fine quality wines has raised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KWC to global status and opened wider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wine market. As per KWC 2021's awards, 'Trophies' were given to the best wines in seven different categories: Red, White, Sparkling, Rose, Sweet, Fortified and newly established 'Medal of Honor'. Additional awards, equally prestigious to a trophy, were bestowed on wines scoring over 94 points, including products from 11 countries. Best of Country awards went to Argentina,

Australia, Chile, France, Greece, Italy, New Zealand, Portugal, Spain, USA and Group of Minor Participation Countries.

From a total of 888 entries at the KWC 2021, the final tally of awards includes 7 Trophies, 11 Best of Countries, 65 Gold Medals, 129 Silver Medals, and 146 Bronze Medals. These wines will hopefully serve as superb guides for Korean wine consumers, showing the way in selecting fine wines.

## <Judges of KWC 2021>

In this year's competition, the panel of 49 renowned judges was able to taste quality wines from a greater variety of nations.

Kang Chang-shin (Osteria Oro) Kwon Hong-sik (Geumsoojang Tourist Hotel 'Arirang House') Kim Kyung-rok (Opnng) Nathan Kim (Fairmont Ambassador) Kim Si-bo (Grandmother) Kim In-gyu (Wine Sheri) Kim Min-soo (Casa VIno) Kim Jong-rye (The Wine House Andong) Kim Jin-beom (Mosu Seoul), Sky Kim (Park Roche) Kim Hyun-soo (Le Phare) Kim Hyeop (KISA) Kim Hyung-nam (Ananti Hilton Busan) Kim Hyeong-uk (Sofitel Ambassador Seoul) Kim Hye-young (Luna Piena) Bak Min-wook (Grand Josun Busan) Park Jong-sup (The\_B) Bae Yoon-ha (Casa del VIno) Sim Woo-sung (BonPlatBonVin) Yang Dae-hoon (Urban Delight · Bar 81) Yang Yoon-ju (Half Past Ten) Wang Do-yeol (Ecole du Vin) Woo Doo-hee (Delisse106) Yoo Byung-hyun (Westin Josun Seoul 9th Gate) Yoo Sang-sun (Moulin) You Young-jin (Vista Walkerhill Del VIno) Yoo Chan (Kangwonland) Youn Ji-hyeon (Chezalex) Yun Hyeong-hun (Tour du Vin) Lee Ga-ram (Vivaracho) Lee Kyeong-jin (Wine Bistro Chacha) Lee Dong-gyu (Rolling Hills Hotel) Lee Dong-woo (Exper) Lee Joo-hyeong (Mille Bolle) Lee Jun-ro (Ici) Daniel Lim (The Darimbang Project) Jung Woo-young (Sommelier) Jung Chan-ha (Ailigote) Jung Ha-bong (Sofitel Ambassador Seoul) Cho Nae-jin (Choi) Cho Eul-ho (Grand Hyatt Seoul) Cho Jae-ho (Mosu Seoul) Ju Jae-min (Jungsik Seoul) Choi Young-jun (Hyundai Green Food EATALY) Choi Jun-seon (The Shilla Seoul) Ha Dong-chan (Ailigote) Han Hyi-su (SPC Paris-Croissant) Hong Kwang-hyun (Les Clefs de Crystal) Hwang Seung-ho (Invino)